

차가운 시선과 일상의 온도: 반중 정서 확산 속 중국인 유학생과 타 국가 유학생의 삶의 질 비교 분석

이민규*

목 차	
I. 서론	III.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 어려움: 현황과 수준
II.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 추세와 수준	IV. 결론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반중 정서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시점을 배경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와 거주 어려움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삶의 질 만족도는 6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거주 어려움은 12개 항목을 중심으로 추세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타 국가 출신 유학생과 비교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상대적 현황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중 정서 확산이라는 부정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는 타 국가 출신 유학생보다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국적별 비교에서도 일부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거주 어려움은 2016년과 2022년 대비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 국가 출신 유학생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이 인식하는 거주 어려움이 '중국인'이라

*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 연구위원

는 국적 요인에 기인하기보다는, ‘유학생’이라는 집단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의 어려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우려와는 달리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전반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유학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2016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거주 어려움이 과거 대비 가중되었다는 결과는 출신 국가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학생 지원 및 관리 정책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주제어: 반중 정서, 중국인 혐오, 유학생, 삶의 질 만족도, 거주 어려움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유입과 정착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혐오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2025년 19.0%까지 하락하였으며,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 또한 2024년 10.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Laura et al. 2025; 김범수 외 2024, 143). 더 나아가 2026년 1월 성사된 중국 국민 방문에서는 혐한과 혐중 정서가 양국 관계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까지 등장하며, 상호 인식 악화가 외교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인 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 중 하나인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절대 규모 또한 감소하였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반중 정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미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중은 2016년 54.0%에서 2024년 24.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출신 유학생 수는 2024년 58,069명으로, 전년 대비 1,090명 감소하여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던 추세가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5). 유학생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고학력 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자원일 뿐 아니라, 지역 소멸에 따른 지방대학 구조조정과도 직결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인구정책 및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반중 정서, 더 나아가 중국인 혐오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련 연구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축적되고 있다. 주요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관계 차원에서 반중 정서를 유발한 분야별 요인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강수정 2022; 이민규 2023; 최윤경 2023). 특정 요인에 주목한 연구로는 외부적 요인인 코로나19와 내부적 요인인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대표적이다(김수경 2020; 정소영·김희교 2022; 김선아 2022). 한편, 중국인 혐오를 유발하는 원인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전반적인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 외에도 특정 세대 집단, 즉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향과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 성과들이 주목된다(강진구 2022; 조의행 2022; 이민규 2025).

이상의 연구는 중국 혹은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와는 달리, 반중 정서(혹은 중국인 혐오)에 방점을 두고 그 원인 규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중국 전공 대학생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경혜 2011; 임규섭 2022가 대표적임). 이러한 반중 정서(혹은 중국인 혐오)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및 유학 생활에 대한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구 대상이 주로 한국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반중 정서(혹은 중국인 혐오)가 중국인 유학생의 실제 한국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다른 연구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반중 정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①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② 지역사회에서 마주한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 ③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 행동 등 세 가지 주제(총 12개 하위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장이츠·김민아 2021). 또한 일상적 인종주의(주변화, 문화제, 억제)의 관점에서 중국인 유학생, 특히 한족과 조선족의 심리 상태를 추적한 연구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강정은·나윤경 2025).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과 심리를 분석한 연구 또한 차별 경험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대처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차별 경험과 그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이 한국 생활 만족도나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외국인 혐오 혹은 차별이 중국 출신에게만 국한된 현상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 혐오의 한 단면으로서 나타나는 중국인 혐오와 특정 국가 출신 집단으로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정책적·사회적 함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상의 연구들은 소수(10~20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어, 경험의 질적 탐색에는 강점이 있으나,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와 거주 어려움 등 일반화 가능한 생활 수준의 변화를 비교·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반중 정서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현시점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만족도와 거주 어려움의 상대적 현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하락하였는가?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체 유학생 집단 및 타 국가 출신 유학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가? 셋째,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생활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거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넷째, 이러한 어려움의 정도는 전체 유학생 집단 및 타 국가 출신 유학생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와 거주 어려움의 상대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분석 자료로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서울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가 내국인(2만 가구, 시민 5천 명)과 외국인(2,5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비자 유형별·국적별 삶의 질 만족도, 거주 어려움, 행복도, 차별 대우 경험 등 다양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단적 비교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서울서베이 자료 활용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 전국 유학생의 31.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출신 유학생의 경우 전국의 44.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대표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확인된다(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5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서울은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 경험과 인식을 대표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계학적으로도 전국 단위를 조사 범위로 설정하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적용된 유의미한 표본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도 단위 역시 기초지자체별 규모와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서베이 자료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분석 자료로 판단된다.

둘째, 분석 대상은 중국 출신 유학생으로 설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 기준에 따라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중국인’ 또한 포함하였다. 유학생(유학 D-2, 일반연수 D-4)은 교육·문화 투자 성격의 D계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주민에 해당한다. 다만 외국 국적 동포(F-4)에 해당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일부가 유학생 통계(행정안전부 및 서울서베이 모두)에 포함되어 집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비자 유형을 합산한 중국 출신 유학생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의 상대적 현황을 비교·검증하기 위해, ①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유학생 간 비교, ② 중국 출신과 개별 국가 출신 유학생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집단 간 삶의 질 만족도와 거주 어려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한편, 분석 기간은 2024년(최신 데이터)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한중 관계 악화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사드(THAAD) 배치와 반중 정서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함께 고려하였다. 특히 코로나19는 외국인 유·출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환경적 변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6년과 2022년(코로나19 종식)을 비교 시점으로 설정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와 거주 어려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 변수는 크게 삶의 질 만족도와 거주 어려움의 두 범주로 구성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을 포함하였다. 삶의 질 만족도는 ① 주거환경, ② 경제환경, ③ 복지환경, ④ 사회환경, ⑤ 교육환경, ⑥ 도시안전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거주 어려움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언어 문제에서부터 비자 등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과 관련된 이슈에 이르기까지 총 12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연구 변수와 관련 문항

변수	문항
삶의 질 만족도	주거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사회환경(외국인에 대한 배려, 포용성 등)
	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
	도시안전(범죄, 사고, 재해 등)
거주 어려움	언어 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음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경제 활동 기회 획득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공공 행정 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의료 기관 이용
	주택 등 주거 공간
	비자 등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 자료: 서울특별시 (2024). 『2024년 서울 서베이 결과 보고서』 참고로 저자 작성.

넷째, 분석 결과는 기술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비교 집단에 따라 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다. 중국 출신 유학생과 타 국가 출신 유학생 간 비교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였다. 또한 국적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후, Games-Howell 사후검정을 통해 어떠한 국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가중치를 보정한 데이터임을 밝힌다.

II.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 추세와 수준

1. 삶의 질 만족도 현황과 추세적 특징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였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만족도는 하락한 반면, 경제환경, 복지환경, 사회환경, 도시안전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 현황과 추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2024년 5점 만점 기준 3.65점으로 나타났다. 변동 폭은 크지 않으나, 2016년 대비 0.15점 하락하였고, 2022년 대비 0.09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교육환경은 주거환경 다음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4년 기준 평균 3.68/5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만족도의 하락 폭은 주거환경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2016년 대비 0.20점, 2022년 대비 0.28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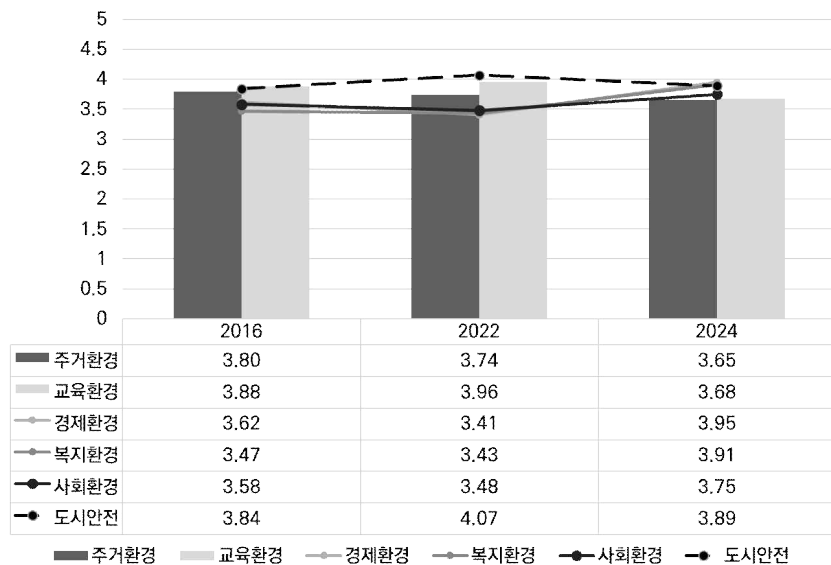
셋째, 경제환경 만족도는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024년 5점 만점 기준 3.95점을 보였다. 2016년 대비 0.33점 증가하였고, 2022년과 비교해서는 0.54점 상승하였다.

넷째, 복지환경 만족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값 기준으로는

도시안전 만족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복지환경 만족도는 3.91/5 점으로 2016년 대비 0.44점, 2022년 대비 0.48점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도시안전 만족도 역시 높은 편으로 2024년 기준 3.89/5점 수준을 보였다. 단, 2016년 대비 0.05점이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전후 비교 시점인 2022년과 비교했을 때는 0.18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안전 분야 만족도가 지속 하락할지 여부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1>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 추세



주1: 가중치 보정 후 데이터 적용

· 자료: 서울특별시 (2017). 『2017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6년 기준)』 ;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 (2024). 『2024년 서울 서베이 결과 보고서』 참고로 저자 작성.

여섯째, 사회환경 만족도는 비록 비교 시점 대비 상승하였지만, 다른 분야 만족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24년 사회환경 만족도는 3.75/5점으로 교육환경과 비슷하다. 이는 2016년 대비 0.17점, 2022년 대비 0.27점 상승한 점수로,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2. 삶의 질 만족도 상대적 수준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비교 집단 대비 전반적으로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즉, 반중 정서 확산이라는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일반 유학생이 체감하는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인 유학생의 분야별 삶의 질 만족도는 타국 출신 유학생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 평균값 기준 주거환경은 0.14점, 경제환경은 0.27점, 복지환경은 0.16점, 사회환경은 0.08점, 교육환경은 0.01점, 도시안전은 0.15점 각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경제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사회환경과 교육환경 만족도 차이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출신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경제환경, 복지환경, 도시안전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중 경제환경 만족도 ($t=4.436, p<0.001$)는 중간 정도의 효과 차이를 보이는 등 중국 출신 유학생의 경제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복지환경과 도시안전 만족도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2>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 수준 비교

삶의 질 만족도	중국 출신	타 국가 출신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비교
			국적별 비교
주거환경	3.65	3.50	$t=1.888, p=0.060, \text{Cohen's } d=0.177$
			베트남($\Delta M=0.4937, p<0.001$)
경제환경	3.95	3.68	$t=4.436, p<0.001, \text{Cohen's } d=0.409$
			미국($\Delta M=0.5097, p<0.01$)
복지환경	3.91	3.76	$t=2.454, p=<0.05, \text{Cohen's } d=0.219$
			-

삶의 질 만족도	중국 출신	타 국가 출신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비교
			국적별 비교
주거환경	3.75	3.66	t=1.082, p=0.280, Cohen's d=0.101
			-
교육환경	3.68	3.66	t=0.193, p=0.847, Cohen's d=0.018
			-
도시안전	3.89	3.74	t=2.579, p<0.05, Cohen's d=0.238
			베트남($\Delta M=0.2854$, p<0.05)

주1: 가중치 보정 후 데이터 적용

마지막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를 국적별로 비교한 결과, 주거환경, 경제환경, 도시안전 분야에서만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거환경 만족도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Delta M=0.4937$, $p<0.001$), 중국인 유학생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환경 만족도는 미국 출신 유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조사되었고($\Delta M=0.5097$, $p<0.01$), 중국인 유학생이 경제적 생활 여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도시안전 만족도 역시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Delta M=0.2854$, $p<0.05$), 중국인 유학생의 도시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유학생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복지환경 만족도는 국적별 사후검정에서는 특정 국가 집단과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표 2> 참조).

Ⅲ.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 어려움: 현황과 수준

1. 거주 어려움 현황과 추세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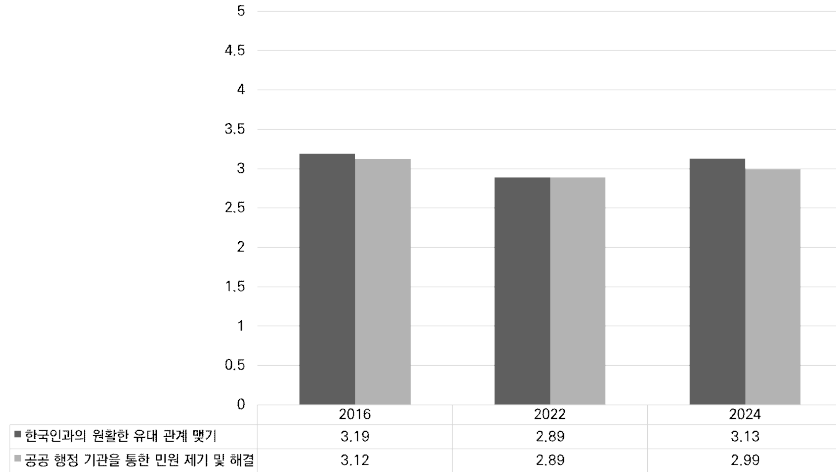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가중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거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개 분야별 거주 어려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기준 ‘자녀 양육 및 교육’ 항목의 어려움이 3.6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대비 0.12점 상승한 수치이다. 표본 수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중국인 유학생 집단 내에서 학업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주택 등 주거 공간’과 관련된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당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3.15/5점으로 두 번째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2016년과 2022년 대비 각각 0.21점, 0.49점 상승한 수치이다.

셋째,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항목의 어려움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3.14/5점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2016년과 2022년 대비 각각 0.31점, 0.64점 상승한 수치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당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 어려움 완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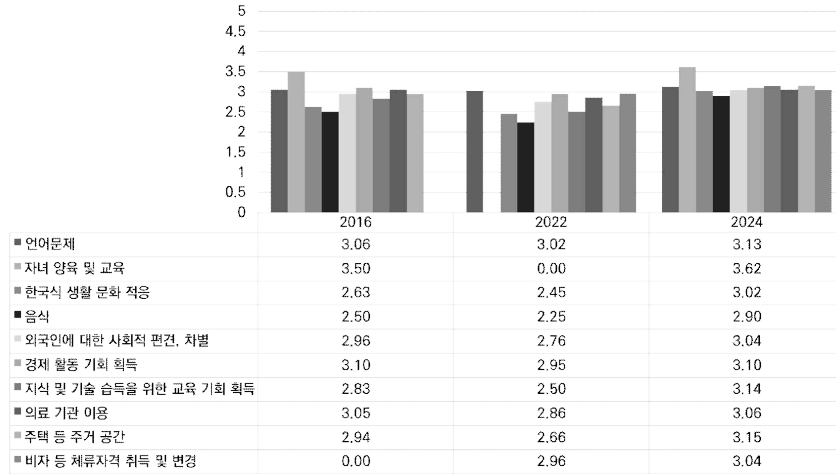
주1: 9(해당사항 없음) 결측 처리 후 분석 결과

주2: 가중치 보정 후 데이터 적용

· 자료: 서울특별시 (2017). 『2017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6년 기준)』;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2024). 『2024년 서울 서베이 결과 보고서』 참고로 저자 작성.

넷째, 내·외국인 사회통합과 관련된 항목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과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모두에서 거주 어려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련 인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항목은 2024년 기준 3.04/5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6년과 2022년 대비 각각 0.08점과 0.28점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항목의 경우, 2024년 기준 3.13/5점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대비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2016년 대비 2022년 0.06점 감소했던 어려움 인식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오히려 0.24점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사회적 편견·차별 경험과 대인관계 형성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더욱 가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3>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 어려움 심화 분야



주1: 9(해당사항 없음) 결측 처리 후 분석 결과

주2: 가중치 보정 후 데이터 적용

주3: 0.00은 조사 문항 미포함 혹은 샘플 수가 0인 경우

· 자료: 서울특별시 (2017). 『2017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6년 기준)』 ;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 (2024). 『2024년 서울 서베이 결과 보고서』 참고로 저자 작성.

다섯째, ‘언어 문제’ 항목의 어려움 또한 낮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3.13/5점으로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2016년과 2022년 대비 각각 0.07점, 0.11점 증가한 수치로, 언어 관련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여섯째, 일상생활과 관련된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과 ‘음식’ 항목의 어려움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두드러지게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항목은 2024년 기준 3.02/5점으로, 2016년과 2022년 대비 각각 0.39점, 0.57점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음식’에 대한 어려움은 2024년 기준 2.90/5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과 2022년 대비 각각 0.40점, 0.65점 증가하였다. 두 항목 모두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적 생활 적응 과정에서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경제 활동 기회 획득’ 항목의 어려움 또한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

만, 과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기준 3.10/5점으로 2022년 대비 0.15점 증가하였다. 다소 완화되었던 경제 활동 기회 획득 어려움 인식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차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공공 행정 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항목의 어려움은 평균값 기준으로 2016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인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4년 기준 2.99/5점으로 2016년 대비 0.13점 감소하였으나, 2022년 대비 0.10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들어 행정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비자 등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항목의 거주 어려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 폭은 크지 않으나 가중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2024년 기준 3.04/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0.08점 상승한 수치이다.

열째, ‘의료 기관 이용’ 항목의 경우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시 가중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4년 기준 3.06/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6년과 2022년 대비 각각 0.01점, 0.20점 상승한 수치로, 최근 들어 의료 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거주 어려움 상대적 수준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거주 어려움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가중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2016년 대비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11개 항목(1개 항목 제외) 중 9개 항목에서는 평균값 기준으로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11개 모든 항목(1개 항목 제외)에서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질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개별 사안에 대한 거주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 어려움이 중국 출신 집단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반중 정서(혹은 중국인 혐오)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이 타 국가 출신 유학생보다 거주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3>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중국 출신 유학생과 타 국가 출신 유학생의 분야별 거주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 언어 문제($t=2.397, p<0.05$),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t=2.884, p<0.01$),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t=3.054, p<0.01$) 등 세 가지 분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눈에 띄는 특징은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항목에서 중국 출신 유학생의 어려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높은 문화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생활 문화 적응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국적별 비교 분석에서는 중국인 유학생과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 간 거주 어려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 어려움이 특정 국가 유학생보다 두드러지게 심화된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항목에서만 아시아 기타 국가 집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elta M=0.4196, p<0.01$), 다른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국적별 비교에서도 생활 문화 적응에서의 어려움이 아시아 국가 집단을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3> 중국인 유학생의 거주 어려움 현황 비교

거주 어려움	중국 출신	타 국가 출신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비교
언어 문제	3.13	2.93	$t=2.397, p<0.05, \text{Cohen's } d=0.225$
자녀 양육 및 교육	3.62	3.59	$t=0.115, p=0.908, \text{Cohen's } d=0.025$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3.02	2.80	$t=2.884, p<0.01, \text{Cohen's } d=0.271$
음식	2.90	2.86	$t=0.469, p=0.640, \text{Cohen's } d=0.045$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3.04	2.98	$t=0.690, p=0.490, \text{Cohen's } d=0.066$
경제 활동 기회 획득	3.10	3.06	$t=0.349, p=0.727, \text{Cohen's } d=0.037$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3.13	3.05	$t=0.858, p=0.391, \text{Cohen's } d=0.081$
공공 행정 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2.99	2.95	$t=0.406, p=0.685, \text{Cohen's } d=0.041$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3.14	2.89	$t=3.054, p<0.01, \text{Cohen's } d=0.287$

거주 어려움	중국 출신	타 국가 출신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비교
의료 기관 이용	3.06	3.03	t=0.329, p=0.742, Cohen's d=0.031
주택 등 주거 공간	3.15	3.12	t=0.357, p=0.721, Cohen's d=0.034
비자 등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3.04	3.09	t=-0.656, p=0.512, Cohen's d=-0.062

주1: 9(해당사항 없음) 결측 처리 후 분석 결과

주2: 가중치 보정 후 데이터 적용

V. 결론

본 연구는 반중 정서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시점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와 거주 어려움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종식 이후 증가하던 규모가 재차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4년 서울서베이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삶의 질 만족도 6개 분야와 거주 어려움 12개 항목의 변화를 2016년과 2022년 대비 증감 여부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중국 출신과 개별 국가 출신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여섯 가지 조사 분야 모두에서 3.5/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만족도는 2016년과 2022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각각 3.65점, 3.68점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제환경, 복지환경, 사회환경, 도시안전 만족도는 모두 3.75~3.95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과 2022년 대비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도시안전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감소). 즉, 2016년 사드 배치 이슈와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 반중 정서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는 타 국가 출신 유학생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유학생 비교 결과, 경제환경, 복지환경, 도시안전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중국인 유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 비교에서도 주거환경에서는 베트남 출신, 경제환경에서는 미국 출신, 도시안전에서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만족도가 2016년과 2022년 대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 출신 유학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거주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더욱 심화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5점 만점 평균값 기준으로 2016년 대비 거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분야는 ①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② 공공 행정 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등 두 가지 이슈에 불과하였다. 다만 주목할 점은 두 가지 분야 모두 2022년과 비교했을 때는 다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8개 분야에서는 2016년과 2022년 대비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넷째, 중국인 유학생의 분야별 거주 어려움이 과거 대비 가중된 것과 달리, 상대적인 어려움 수준은 타 국가 출신 유학생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문제,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등 세 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유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적별 비교 분석에서도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한 가지 분야에서만 아시아 기타 출신보다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한국 유학 생활 어려움에 있어 뚜렷한 국적별 차이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반중 정서 등의 여파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생활 만족도가 하락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인 유학생이 타 국가 출신 유학생과 비슷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10여 년 전 심리학 분야에서 수행된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진민진 외 2011). 진민진 외(2011, 792)가 2011년 측정한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은 16.8점(SD=6.072)(2.1/5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학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타문화 환경에 진입하여 비교적 단기간 체류 후 귀국하는 유학생의 특성과 관련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인 유학생이 본국에서 주류 사회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차별감을 덜 인식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유학생 전반의 인식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족도 하락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국적별 유의미한 차이는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거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 문화 적응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유하는 긴 역사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한중 양국 관계 속에서도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과 언어 문제에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는, 추가적인 원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수정 (2022). “반중(反中) 정서의 확산?: 한국인들의 대중국 감정과 인식 변화 분석.” 『현대중국연구』. 제24권. 제3호, pp. 27-75.
- 강정은·나윤경 (2025). “중국인을 향한 ‘미완’(未完)의 혐오 - 재한 중국 유학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혐오 -.”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제84호, pp. 91-111.
- 강진구 (2022). “COVID-19 팬데믹과 초연결사회의 자화상 -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차별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제69권, pp. 5-39.
- 김경혜 (2011). “국내 중국학관련전공 대학생의 중국·중국인에 대한 인식 : 중국유학 경험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32권. 제32호, pp. 214-230.
- 김범수 외 (2024). 『2024 통일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선아 (2022). “한국 내 중국 뉴스 편역 양상 - 조선일보, 한계레신문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6호, pp. 3-32.
- 김수경 (2020).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제14권. 제1호, pp. 22-43.
- 이민규 (2023). “무너진 기대심리: 한국인의 반중 정서 요인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1권. 제21호, pp. 177-218.
- 이민규 (2025). “범죄자가 된 오래된 친구: 한국인의 중국인 혐오 실태 분석.” 『한중관계연구』. 제11권. 제3호, pp. 117-134.
- 임규섭 (2022). “중국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 사이버대학교 중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3호, pp. 98-123.
- 장이츠·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1호, pp. 22-41.
- 정소영·김희교 (2022). “의미연결망분석과 감정분석을 통해 본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와 반중 감정 - 코로나 19 사태 전후를 중심으로.” 『중국언어문논총』. 제110권. 110호, pp. 109-137.
- 조의행 (2022). “MZ세대의 반중감정: 그 현황과 전망.” 『역사와 융합』. 통권 10호, pp. 175-208.
- 진민진 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 제4호, pp. 783-797.
- 최윤경 (2023). “2017~2022년, 한국의 반중(反中) 의미 : 네이버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로.” 『동서인문』. 제21권. 제21호, pp. 59-93.

2. 기타

서울특별시 (2017). 『2017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6년 기준)』.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2024). 『2024년 서울 서베이 결과 보고서』.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5).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4.11.1. 기준].” 행정안전부.

Silver, Laura et al. (2025). “International Views of China Turn Slightly More Positive.” Pew Research Center.

| 논문투고일 : 2026년 02월 01일 |

| 논문심사일 : 2026년 02월 22일 |

| 게재확정일 : 2026년 02월 24일 |

| ABSTRACT |

**Cold Gazes and the Warmth of Everyday Life:
A Comparative Study of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and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Context of Rising Anti-Chinese Sentiment**

Min-gyu Lee

(Urban Society Research Division, The Seoul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have changed in the context where anti-Chinese sentiment has emerged as a major political and social issue.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rends in six domains of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and twelve categories of residential difficul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lative condition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further compared and validated against those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unfavorable environment created by the rise of anti-Chinese sentimen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found to report relatively high levels of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In three out of the six domains, their satisfaction levels were even higher than those of non-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nationality-based comparisons, Chinese students also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satisfaction than students from certain other countries.

Second, the residential difficulties perceived b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found to have intensified compared to 2016 and 2022.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Chinese students and those from other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the residenti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y not be primarily attributable to their nationality, but rather reflect challenges commonly faced by international students in general.

Third, contrary to initial concerns, the overall quality of life condition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assessed as relatively positive. Nonetheless,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al environment—closely related to students’ study-abroad experiences—was comparatively low and showed a decline compared to 2016, indicating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underlying causes. Moreover, although residential difficultie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y nationality, the survey results indicating an overall increase in such difficulties highlight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policy review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and assistance.

- Key words: Anti-Chinese Sentiment; Sinophobia; International Students;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Residential Difficulties